

PHILLIPS READERS
ACADEMY

필립스 리더스 아카데미

어 법 으 로 세 계 를 고 치 는 자 들 의 이 야 기

제1부 · 문장의 뼈대

첫 번째 이야기 · 보충1

이 름 표 와 자 리 표

전체 100화 中 제1-1화

프롤로그

로비에 들어가기 전, 발급소

수일치 임프 두 마리를 물리친 도운과 정오가 정문 로비로 향하려 하자, 문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로비의 다섯 기둥을 만나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정오가 지친 얼굴로 물었다.

「이름표와 자리표를 받는 곳이야.」 문형이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다. 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발급소」.

방 안에 들어서자, 벽 한쪽엔 여러 모양의 이름표가, 반대쪽 벽엔 자리 배치도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모든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있어. 이걸 품사라고 해.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실제로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이걸 문장성분이라고 부르지.」

「이름표랑 자리표가 다른 거예요?」 도운이 물었다.

「그래. 이름표는 태어날 때 정해져서 안 바뀌어. 그런데 자리는 문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오늘은 이 둘을 확실히 구별하는 법을 배울 거야.」



제 1 장

여덟 개의 이름표 — 품사

첫 번째 벽에는 여덟 개의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문형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명사— 사람, 사물, 개념의 이름. dog, love, Seoul. 대명사—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 he, this, someone. 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run, is, believe.」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말. beautiful, tall, happy. 부사— 동사·형용사·다른 부사·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quickly, very, however.」

「전치사와 접속사는 7화에서 이미 확실히 배웠지?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관계를 나타내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줘. 마지막으로 감탄사— 감정을 툭 던지는 말. Wow, Oops, Ouch.」

품사(8종) —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정된 신분.

명사(dog) · 대명사(he) · 동사(run) · 형용사(beautiful) · 부사
(quickly)

전치사(in) · 접속사(because) · 감탄사(Wow)

필 립 스 문 법 서 · 제 1 조 의 2 — 품 사 8 종

「그런데 선생님, 같은 단어가 다른 이름표를 달 때도 있지 않아요?」 정오가 물었다. 「run은 동사인데, a morning run이라고 하면 명사잖아요..」

「예리한 질문이야. 맞아, 이름표 자체가 문맥에 따라 바뀌는 단어들도 있어. 하지만 그건 '그 순간' 그 단어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느냐의 문제고 —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이름표(품사)와 자리표(문장성분)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라는 것..」



제 2 장

다섯 개의 자리표 — 문장성분

두 번째 벽에는 다섯 개의 자리표가 걸려 있었다. 각각 이렇게 쓰여 있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건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이야.」 문형이 설명했다.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 서술어는 그 주인공이 하는 동작이나 상태, 목적어는 그 동작을 받는 대상,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짝, 수식어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장식이야.」

The tall boy ate an apple quickly.

「이 문장을 자리표로 나눠볼까?」

도윤이 하나씩 짚었다. 「The tall boy가 주어, ate가 서술어, an apple이 목적어, quickly가 수식어… tall도 수식어인가요?」

「정확해. tall은 boy를 꾸며주는 수식어야. 그런데 재밌는 건, tall의 품사(이름표)는 형용사지만, quickly의 품사는 부사야. 서로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문장성분(자리표)으로는 둘 다 '수식어'라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문장성분(5종) — 단어(구)가 이 문장 안에서 실제로 맡는 역할.

주어(누가/무엇이) · 서술어(어찌하다/어떠하다) · 목적어(누구를/
무엇을)

보어(주어·목적어를 설명) · 수식어(꾸며주는 장식)

필 립 스 문 법 서 · 제 1 조 의 3 — 문 장 성 분 5 종



제 3 장

이름표는 고정, 자리는 가변

문형이 두 벽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확인해보자. 같은 단어, love를 볼까.」

Love is blind. (love = 명사, 주어)

I love you. (love = 동사, 서술어)

「첫 문장에서 love는 명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주어 자리에 앉았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술어 자리에 앉았지. 이름표가 바뀌면 자리도 따라 바뀌는 거야.」

「그럼 이름표는 같은데 자리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정오가 물었다.

「물론이지. happy를 볼까.」

She is happy. (happy = 형용사, 보어)

the happy girl (happy = 형용사, 수식어)

「happy는 두 경우 다 형용사야. 이름표는 그대로인데, 첫 문장에선 보어 자리에, 두 번째에선 수식어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도윤이 정리했다. 「이름표(품사)를 안다고 자리(문장성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네요.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지금까지 배운 수일치, 5형식, 접속사— 전부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데서 시작해.」

품사는 고정, 문장성분은 가변.

같은 단어라도 문장 속 역할(문장성분)은 달라질 수 있고, 이름표(품사)가 바뀌면 자리도 따라 바뀐다.

Love is blind.(명사·주어) / I love you.(동사·서술어)
 She is happy.(형용사·보어) / the happy girl(형용사·수식어)

필 립 스 문 법 서 · 제 1 조 의 4 — 품사와 문장성분의
 관 계

발급소 안이 환하게 빛나며, 도윤과 정오의 손목에 작은 이름표와 자리표가 새겨졌다. 문형이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 정말로 로비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 다섯 기둥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부 록 · 통 과 의 례

1. 다음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 quickly, however, Ouch

정답 — quickly(부사), however(부사, 접속부사), Ouch(감탄사).

2. 밑줄 친 단어의 문장성분을 쓰시오 — Water boils at 100°C.

정답 — 주어. Water는 품사로써 명사, 문장성분으로는 이 문장의 주어다.

3. 다음 두 문장에서 fast의 품사와 문장성분을 각각 비교하시오 — He is a fast runner. / He runs fast.

정답 — 앞: 형용사·수식어(runner를 꾸밈) / 뒤: 부사·수식어(runs를 꾸밈).

품사는 다르지만 문장성분(수식어)은 같다.

4. 다음 중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 ① 품사를 알면 문장성분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② 같은 품사라도 문장성분은 다를 수 있다.

정답 — ②. 품사는 단어의 고정된 신분, 문장성분은 그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라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구분	정의	종류
품사	단어가 타고나는 고정된 신분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부사·전치사·접속사·감탄사 (8종)
문장성분	문장 속에서 실제로 맡는 역할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수식어 (5종)

품사는 이름표, 문장성분은 자리표다. 이름표는 단어가 원래 어떤 종류인지를 말해주고, 자리표는 그 단어가 이 문장에서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모든 어법의 첫걸음이다.



다음 이야기 — 「문장의 다섯 얼굴」

이름표와 자리표를 알았으니, 이제 그 자리들이 모여 만드는 다섯 가지 문장의 형식을 만나볼 차례다.

도운과 정오, 정문 로비의 다섯 기둥 앞에 선다.